

순천시, '함께 그린(green) 순천 챌린지' 기부 참여 줄이어

시민들, 도심 속 녹색공간에 휴게시설 확충위해 운동기구·벤치 등 2천여만 원 상당 기부물품 쾌척

순천시는 지난 22일 자발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개 중인 '함께 그린(green) 순천'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과 첫 번째 기부금품 전달식을 가졌다.

'함께 그린 순천' 챌린지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응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도심 속 녹색공간에 휴게시설 확충해 나가자는 취지의 범시민운동이다.

이날 첫 번째 기부금품 전달식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가정, 단체, 기업이 참여하여 가운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천, 박람회장 등에 운동기구, 야외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2천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쾌척했다.

1호 기부자인 김 씨는 다문화 가정으로 자녀의 첫 돌 기념으로 자녀 이름으로 야외 벤치를 기부하고 싶다는 취지로 지난 1년간 하루 1천원씩 저금해 365,000원을 전해왔다.

2호 기부자는 어린이집 원장 3명이 주축이 되어 활동 중인 하늘빛봉사단(대표 백경애)에서 '그동안 모은 화비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며 100만원을 기부했다.

3호 기부자는 해룡면 소재 예코동아이린이집(원장 백은경) 교직원들로 십시일반 모아 '어린이들의 실수 있는 휴식 공간에 벤치 설치해 달라'라면서 50만원을 기부했고, 4호 기부자는 신대에 사는 한지우(12세) 어린이로 '코

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행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용돈을 모아 저금한 50만 원을 전달해 감동을 자아냈다.

5호 기부자는 서울에서 조경공사와 조경 시설물·운동기구 설치업 등을 하는 새봄조경 FT(주)로, 순천대학교 출신 공지는 대표이사 '고향인 순천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1584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기부했다.

하석 순천시장은 "어린이부터 어른, 기업체까지 시민들을 위한 기부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라면서,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낳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기부 문화의 확산에 참여하여 도심 속 곳곳이 나눔의 의미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달받은 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동천과 정원박람회장 등에 기부자의 스토리가 담겨진 꽃말과 함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생태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계획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부영3단지 사거리 '녹도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 건의사항... 시민불편 해소



여수시가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부영 3단지 사거리 인근 녹도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28일부터 개방했다고 알렸다.

시에 따르면 '녹도공원 공중화장실'은 지난해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축하게 됐다.

'녹도공원 공중화장실'에는 남·여 화장실 모두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대소변기와 범접 예방을 위한 비상벨이 설치됐다. 또 공원 이용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띠걸러)도 조성됐다.

주변에 택시와 버스 승강장과 있고, 유동인구도 많아 화장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금년 중 '밤마 어린이공원'과 '무선산공원'에도 공중화장실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오도동 공중화장실'도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녹도공원 공중화장실을 신축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이 없거나 노후된 공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보성군,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예고 성공

보성군은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가 지난 25일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예고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약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르면 4월 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할 예정이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근대 이후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오봉산 구들장은 우리나라 최대 구들장 채석산지로 1930년대부터 1980년 초까지 약 50여 년간 채석이 이루어졌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담당했다.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는 소 달구지길, 당시 채석과 운반에 사용되었던 각종 도구와 장비가 현재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산 전체에 운반로가 거미줄처럼 산재해 있고, 갈지(之)자



보성=김명순 기자

광양시, 서천·마동 음악분수 내달 1일 본격 운영

10월 31일까지 하루 2차례 공연과 이벤트 진행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던 서천·마동 음악분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서천 음악분수는 고사분수와 화염분수를 통해, 마동 음악분수는 최대 75m의 고사분수와 광양시화인 동백꽃을 연상시키는 원형분수의 다양한 조형과의 조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했던 시민의 가슴을 뽐 풀어줄, 다양한 공연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고백, 생일 및 졸업 등 다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컬러레이저와 빔프로젝터를

통해 워터스크린에 음악과 함께 영상을 표현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gwangyang.go.kr) 하단 관광객 카테고리 내 음악분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문구와 사진을 첨부해 이벤트 희망일 5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 준다.

서천·마동 음악분수는 4월 1일~10월 31일 운영하며, 평일에는 오후 8시와 8시 30분으로 20분간 공연을 진행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8시와 9시에 30분간 공연을 진행하고, 매



광양=심승섭 기자

고흥군,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강

고흥군은 28일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과 이미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초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2022년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교육'을 개강했다.

이번 제1기 교육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관내의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와 선도농가를 초빙하여 귀농귀촌 준비와 정착에 도움이 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론, 체험)으로 구성, 운영된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내사랑 고흥기금 100억원을 활용한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민선7기 들어 무려 5,600여명의 인구유입과 매년 다방면의 귀농귀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 명실상부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고흥군의 귀농귀촌이 인구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